

푸른연극마을 씨어터연바람 주최...1-7일 제11회 대한민국소극장열전

# 전국 소극장 연극축제 한여름 빛고을 달구다

## 7개 극단 참여...주제 토론회 등 부대행사도

지역 소극장들의 축제 '대한민국소극장열전' (대소열)이 열한번째 이야기를 펼친다.

제11회 대소열은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간 광주 푸른연극마을 씨어터연바람 주최로 열린다.

2012년 광주·구미·춘천·부산·대구·전주 등 소극장이 주축이 돼 결성된 '대한민국소극장열전'은 각 지역 소극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는 연극 페스티벌이다.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창작 시스템에서 벗어나 지역 중심의 웰메이드 창작 공연을 교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먼저, 1일 씨어터연바람에서 광주 푸른연극마을의 '노인과 바다' 공연이 첫 시작을 알린다. 해밍웨이의 명작 '노인과 바다'를 연극적 상상력으로 구현해 선보이는 작품이다.

2일 공연은 예술극장 통에서 열린다. 구미 문화창작집단 공터다의 '타이피스트' 무대가 펼쳐진다. 머레이 쉬스갈의 명작 2인극 '타이피스트'를 연극으로 꾸며냈다. 타이피스트로 취직한 폴과 실비아 두 남녀의 40년간의 인생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도시민들의 꿈과 희망, 삶의 의미를 돌아보는 아름다운 작품이다.

춘천 극단 도모의 '가정식백반 맛있게 먹는법'은 3일 씨어터연바람에서 개최된다. 여성 배우 두 명의 연연을 엿볼 수 있다. 백과사전을 파는 영업사원 숙희는 어느 날 만화가 미진의 집에 찾아가게 되고, 미진은 숙희에게 식사를 제안한다.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숙희만이 몰랐던 미진의 과거가 밝혀진다.

4일 예술극장 통에서는 부산 공연예술창작집단 어니

인킹의 '해안도로'가 무대에 오른다. 탄크레드 도르스트의 작품을 각색해 실험적으로 재구성한 작품이다. 자신만의 공간에서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남매와 그들 공간에 갑자기 불청객이 찾아오면서 생기는 이야기다.

대구 극단 한울림의 '못생긴 남자'는 5일 씨어터연바람에서 펼쳐진다. 마리오스 폰 마이엔부르크의 작품이 원작으로, 물질화, 대량생산 사회 속 흔들리는 인간의 존재론을 가감 없이 그려낸 작품이다.

6일 예술극장 통에서 열리는 전주 극단 빈칸의 '카모마일과 비비면'은 관계와 사랑에 대한 잔잔한 이야기다. 작가지망생이자 카페 사장인 관우의 가게로 낯선 여자가 찾아오면서 전개되는 스토리다.

특별 초청공연으로는 서울 공상집단 동판지의 '후산부, 동구씨'가 준비돼 있다. 7일 오후 5시에 씨어터연바람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은 88년도 광주 희락탄광 붕괴사고로 4명의 광부가 탄광에 갇히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아울러 공연 기간 중 소극장 공연 관련 주제토론회도 개최된다. 3일 '문화예술의 해답, 지역에서 찾다'를 주제로 대한민국소극장열전 발전방향에 대한 난상토론이 펼쳐지며, 5일에는 지역소극장활성화를 위한 실제적 지원방안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열린다.

공연 티켓은 인터파크, 플레이광주, 씨어터연바람 네이버블로그를 통해 예매할 수 있다. 티켓 가격은 2만원이며, 7개 공연 전체를 관람할 경우 10만원에 공연을 즐길 수 있다.

한편, '대한민국소극장열전 IN 광주'의 평일 공연은 오후 7시30분, 주말(토·일) 공연은 오후 5시에 개최된다. 공연 관련 문의는 씨어터연바람 페이스북 또는 인스타그램 참조. (0662-226-2446) /최명진기자



사진 위로부터 시계방향 광주 푸른연극마을 '노인과 바다', 대구 극단 한울림의 '못생긴 남자', 부산 공연예술창작집단 어니인킹의 '해안도로', 서울 공상집단 동판지의 '후산부, 동구씨'

## '서로를 물들이는 빛'... '평화가 지켜낸 꿈꾸는 미래'

### 민주·인권·평화 일러스트&그림일기 공모전 대상

ACC, 20팀 선정...교육자료 활용

올해 ACC 민주·인권·평화 일러스트&그림일기 공모전에서 '서로를 물들이는 빛(엄다미 작)'과 '평화가 지켜낸 꿈꾸는 미래(한소정 작)'가 일러스트와 그림일기 부문 영예의 대상을 안았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2022 ACC 민주 인권 평화 일러스트&그림일기 공모전' 수상작 20편을 선정, 지난달 25일 시상식을 개최했다.

또 이날 시상식에서는 '위 아(WE ARE) 5-18(맹화영 작)'과 '평화를 위해요(송재희 작)'가 최우수상을 각각 받았다.



2022년 5월 18일 수요일 평화와 꿈  
미래세상에서 평화가 왔다. 대한민국에서 무독성 민주평화가 아시아 전 세계로 확대되어 모두가 그림일기부문 대상 수상작 '평화가 지켜낸 꿈꾸는 미래' <ACC제공>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접수한 159편의 출품작 중 주제 관련성과 작품성 등



일러스트 부문 대상 수상작 '서로를 물들이는 빛' <ACC제공>

평가기준에 따른 두 차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최종 확정했다.

이들 작품은 채널 ACC·미디어월·뉴스통신망(SNS) 등 ACC의 각종 소통창구를 통해 교육과 홍보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이강현 전당장은 "민주·인권·평화의 오월정신을 배경으로 ACC가 태동했다"면서 "앞으로도 보다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최명진기자

## 제32기 광주박물관대학 수강생 모집

### '지적 공감, 서양미술사' 주제

국립광주박물관은 인문학적 상상력과 예술적 감성을 깨우는 문화강좌인 '제32기 광주박물관대학'을 개설하고 수강생을 모집한다.

(사)국립광주박물관회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제32기 광주박물관대학은 '지적 공감, 서양미술사'를 주제로 고대부터 18세기까지의 미술을 다룬다.

강좌는 9월14일부터 11월23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4시 교육관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제32기 광주박물관대학 강의는 ▲서양 문명과 고대 그리스 - 로마 미술 ▲고딕 성당 빛으로 짓다 ▲초기 그리스도교와 비잔티움 미술 ▲북유럽 르네상스의 미술 ▲중세 11-14세기 그리스도

교 미술 ▲이탈리아 르네상스 미술 ▲고대 문명을 찾아서 -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등 총 11차시로 이뤄졌다.

시대별 특징과 함께 대표적인 작가나 사례 등을 살펴보고서양미술의 역사적 흐름을 조망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강사는 국내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서양미술 전문 강사진으로 조은정(목포대 교수), 임석재(이화여대 교수), 조수정(대구가톨릭대 교수), 손수연(홍익대 교수), 이은기(목원대 명예교수), 박정호(서울대 교수), 김영나(전 국립중앙박물관장, 서울대 명예교수) 등이

다. 제32기 광주박물관대학은 선착순 200명을 모집하며 수강료는 12만원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광주박물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명진기자

**방치된 묘지 70%(추정)**

**매장 → 매장**  
**매장 → 봉안**  
**매장 → 수목장**

· 오랜 경험과 노하우!  
· 탁월한 기술력과 정직한 가격!  
· 광주·전남 어디서나 전화 한통으로 이장고민 해결!

**묘지이장/관리 전문 업체**

"날짜 택일에서 화장장 예약, 안치까지, 정성을 다하여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자연으로 돌아가는 아름다운 삶의 마침표**

**여름철 비수기 특별할인!**

**광주 묘업**

**☎ 010-8674-1037**